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미디어 전쟁 양상 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최 태 훈

(건국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판적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환구시보 사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국면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과 그 질서의 재편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은 어떤 담화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가? 둘째, 같은 기간 환구시보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소환되는가?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로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첫째,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담화질서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을 잠재운다. 2)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애국심을 고취한다. 3) 인민을 결집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을 통해 모든 사안을 정치화한다.

둘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이 보이는 표현은 "落井下石"과 "亞洲病夫"가 핵심이 된다. 이 두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패턴화된 담화 관행을 구성하여 중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함'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落井下石", "亞洲病夫"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가지는 '비도덕'과 '불패함'이라는 무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이 표현들은 미중 힘겨루기와 관련된 사건들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일반 대중의 자각된 의식 수준으로 각인되어 이 담화관행이 만들어낸 정당성을 믿도록 조작한다. 이 담화의 프레임은 중국이 미국에게 하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고 정당하며, 반대로 미국은 비

* 이 논문은 2019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도덕적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이데올로기 왜곡 효과를 만들어낸다.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에서는 1) 미국의 '미디어 전쟁' 촉발 주장과 중국의 자위권 발동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2) 협박과 회유의 이중 언어 전략을 핵심으로 보았다. 중국은 미국이 선제공격하였음을 '미디어 전쟁' 관련 6편의 사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선제공격의 죄를 미국으로 돌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미디어 전쟁'은 중국의 '체면(面子)'과 관련된 문제이다. 체면을 살리되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그 결과 사실은 협박과 회유의 이중구조가 교차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파한 '동아시아의 병자'는 '중국 위협론'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의 '중국 위협론'은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산해가며 눈에 보이는 실질적 '중국위협론'으로 변화되어 간다.

주제어 : 코로나19, 미·중 미디어 전쟁, 落井下石, 亞洲病夫, 비판적 담화분석

1. 서론: 연구방법론과 연구문제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김해연, 2016, Fairclough, 2004, 2011, 2012)은 힘의 불균형과 이념의 지배에 근거한 사회구조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사회적, 이념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살려 개인 또는 집단의 힘을 기르고, 확장하여 집단의 권력화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의 담화전략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비판적 담화 분석의 목적은 언어가 특정 이해집단의 의도에 의해 변형(misinterpretation) 또는 왜곡(distortion)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김해연 2016, p. 312). 그 분석대상은 권력과 이념이 잘 드러나는 미디어 담화와 정치 담화가 일반적이다(이원표, 2015). 특히 미디어는 특정 권력의 이념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써 권력자와 일반 독자를 매개하여 현대의 힘겨루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의 연구는 특정 미디어의 담화 생산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가에 대해 집중해 연구하고 있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언어 자료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기술(description: 1차원 분석),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담화 관행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 2차원 분석), 텍스트 생산, 소비, 해석의 기초가 되는 사회문화적 사건들, 즉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설명(explanation: 3차원 분석)의 3단계 모델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Fairclough, 2011). 즉 텍스트에 대한 기술은 어휘, 어구, 문장, 문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전체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특정 이념을 생산하고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적 전략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해석은 텍스트가 생산되는 매체의 특성, 텍스트의 전후 맥락을 둘러싼 상호작용, 텍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둘러싼 상호텍스트성에 대해 해석한다. 텍스트 설명은 특정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맥락에 대해 고찰하여 특정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힘겨루기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연구 틀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담화 관행’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담화 관행’이란 Fairclough(2004)가 제시한 비판적 담화 분석틀의 2단계(2차원 분석)에 해당하는 분석 단계로 “텍스트와 사회·문화적인 관행 사이(p.86)”를 중재하는 분석 과정이다. 텍스트는 사회·문화적 관행의 양상에 따라 생산되지만 역으로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관행이 형성하기도 한다. 2차원 텍스트의 담화 관행은 “의사소통 사례와 담화 질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p.87)”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 사례가 담화질서를 만들어내는 양상과 더불어 그 질서를 재편하는데 미치는 영향

1) 최윤선(2014), 『비판적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p.24: “CDA 연구 방법론은 하나로 고정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일반화하는 공통의 분석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들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Fairclough가 제시한 3차원 담화분석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CDA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Fairclough 개인의 방법론임을 밝혀둔다.”

까지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Fairclough(2004)에 따르면 의사소통 사례로써 특정한 미디어 텍스트와 이 텍스트를 둘러싼 ‘담화 질서’라는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초점을 대상으로 매체(미디어)의 정치 담화 분석법을 제시하였다(Fairclough & Fairclough, 2015).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는 특정 언어 공동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용인된 방법들의 연계망으로 정의된다(Fairclough, 2004, p.80). 본 연구에 있어서 담화질서는 코로나를 통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떤 담화 질서를 형성하는 장르 및 담론의 배열(configuration), 장르와 담론 사이 및 이 담화 질서와 사회적으로 인접한 다른 담화 질서들 사이의 변화하는 관계(p.82)”의 경로를 따라가 추적 관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미·중 의사소통에서 단일한 소재로 촉발된 사건(코로나 국면) 중심으로 중국 환구시보의 사실들을 분석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둘째, 사건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전 과정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담화 질서’ 재편 국면별 변곡점 확인, 분석의 초점이 되는 갈등이 극대화된 시점(절정)의 텍스트 선별을 통한 언어 기술, 담화 관행 해석, 사회문화맥락 설명의 차원에서 분석 및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비판적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환구시보 사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국면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과 그 질서의 재편 과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가 최초로 언급된 2020년 1월 19일 환구시보 사실을 기점으로 3월18일까지 60일간 발표된 사실의 수는 총 67편이다. 이 가운데 미·중문제를 드러내는 사실은 1월 19~31일(전체 11편)에서 1편, 2월 1일~29일(전체 32편)에서 6편, 3월 1일~18일(전체 23편)에서 10편으로 전체 17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미·중 문제 관련 17편을 중심으로 비판적 담화분석의 2차원 분석 ‘담화관행’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은 어떤 담화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가?
2. 같은 기간 환구시보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소환되는가?
3.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은 무엇인가?

2.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 전개 양상

2.1 1월의 국면 전개 양상

환구시보는 2020년 1월 19일 코로나를 처음 언급하는 사설을 발표한다(「**防控好新型肺炎, 讓春節更祥和**」: 신종폐렴을 잘 막아야, 춘절이 더욱 상서롭고 평안할 것이다). 이로부터 1월 31일 외부에 첫 입장을 표명한 사설(「**做好自己, 無需担心世界歧視中國**」: 스스로 잘하면, 세계가 중국을 경시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까지 ‘화웨이(華為)’를 언급한 1월 29일 사설²⁾을 제외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총 10편의 글을 발표한다. 역병에 맞선 국가적 대응 방안과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 단속 기조가 제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월 31일 사설은 중국이 처한 어려움, 즉 “세계가 중국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잘하자”라고 말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적 차별에 노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최초로 외부대응을 고려한 사설로 판단된다. 또한 걱정이 불필요하다고 표현했으나,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음이 제목에서 읽혀지고 있다. 이는 2월에

2) 환구시보(2020.01.29.), 「**美國打壓華爲遭遇重挫, 該反思了(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여 큰 타격을 입게 했는데, 반성해야만 한다)**」. 2020.01.19.~31. 기간에 발표된 미·중 갈등을 제목에서 직접 언급한 유일한 환구시보 사설이다.

전개되는 환구 시보 사설의 전체적인 논조, 즉 세계의 중국 경시 및 차별에 관련된 입장을 전제하는 ‘배경화(backgrounding)’³⁾ 효과가 있다.

2.2 2월의 국면 전개 양상

2월의 총 32편 사설 가운데 미국 관련 사설은 <표 1>과 같이 6편이다.

<표 1> 2월 미국 관련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

날짜	사설 제목	주요 내용
2/2	莫在中國處於臨時困難時落井下石	우물(곤란)에 빠진 중국에게 돌을 떨어지지 마라
2/10	這個時候詆毀中國，蓬佩奧刷新下限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는 폼페이오 비난
2/15	美國再次起訴華為，是黔驢技窮	미국 화웨이 재기소에 대한 비난
2/16	美政客慕尼黑“放毒”污染國際關係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는 미국정치인들 비난
2/19	打壓中國媒體，美執政精英們在玩政治	중국 미디어 탄압 장난하는 미국정치 세력 비난
2/25	在記者問題上，奉勸華盛頓別走太遠了	중국 미디어 보복을 논의하는 미국을 협박과 회유

2월 2일 사설 「莫在中國處於臨時困難時落井下石(중국이 임시 곤란에 처할 때 우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떨어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의 경우 8121명이 댓글을 달아 가장 많은 독자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3) 담화 구성에서 화제들은 모두 동일한 위치에 놓이지 않고 텍스트들 간의 배열에 따라서 초점을 받아 전면에 위치하거나 또는 초점에서 벗어나 후면에 위치하기도 한다. 텍스트의 특정한 부분이 초점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전경화(foregrounding)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초점에서 벗어나 있지만 전체적인 담화의 기저적인 맥락을 구성하는 효과를 지니도록 텍스트를 위치시키는 것이 배경화(backgrounding)이다 (Fairclough, 2004).

특히 “폼페이오”의 ‘중국위협론’ 설파를 우물에 빠진 중국에게 돌 떨어구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사설은 코로나로 인해 혼란에 빠진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 국내문제 단속에서 벗어나 反美로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지시등을 밝힌 이정표와 같은 글이 된다. 2월 7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알린 이원량(李文亮) 의사의 사망일이다. 따라서 중국당국의 초기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2월 10일 사설 「這個時候詆毀中國, 蓬佩奧刷新下限(이 시기에 중국을 헐뜯는데, 폼페이오가 새로운 하한선을 쇄신했다)」에서 “폼페이오”란 이름을 다시 거론하며 중국을 헐뜯는 미국의 치졸함을 드러내고, “새로운 하한선을 쇄신했다”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의 일환인 화웨이 기소에 대해, 사설(2월 15일)은 “黔驢技窮(얼마 안 되는 재주도 바닥났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미국의 조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협박성의 경고를 날린다. 화웨이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분야로 ‘중국제조2025’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더 나아가 2월 16일 사설 「美政客慕尼黑“放毒”污染國際關係(미국 정치가의 뉘른에서 중국비난은 국제관계를 오염시켰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중국비난이 국제관계를 오염시킨 것으로 표현하여, 현 상황을 국제정치의 양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2월 19일과 2월 25일의 두 편의 사설은 환구시보가 “媒體(미디어) 전쟁”을 촉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먼저 2월 19일 사설 「打壓中國媒體, 美執政精英們在玩政治(중국 매체를 탄압하는데, 미 집권 엘리트들이 정치 놀이를 하고 있다)」로 미국이 중국 매체를 탄압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제 정치학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쓴 「중국은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칼럼을 발표한다.⁴⁾ 이 영문제목은 「中國是真正的亞洲病夫」로 번역되고, “亞洲病夫(아시아

의 병자)’라는 표현이 중국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게 된다. 표면적으로 해당 글의 제목은 ‘중국=코로나=아시아병자’라는 등식으로 코로나에 허덕이는 중국을 비난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亞洲病夫(아시아의 병자)”라는 표현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에 의해 몰락해가는 중국을 지칭한 “東亞病夫”라는 오명과 오버랩되어 중국인들에게 치욕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에 중국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없자 중국은 19일 이 신문사의 중국 특파원 3명에 대해 ‘기자증’을 취소하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추방조치에 상응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설은 미국이 재미 중국 기자들의 기자 자격을 ‘외교사절단’의 지위로 바꾸는 정치적 장난을 쳐서, 재미 중국특파원의 숫자를 조절하는 탄압을 하려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구시보는 2월 25일 「在記者問題上, 奉勸華盛頓別走太遠了(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문제로, 워싱턴은 너무 일을 확대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들라.)」에서 미국이 자국 기자의 추방에 따른 구체적인 보복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국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기자문제로 워싱턴이 일을 확대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25일 글은 향후 3월 환구시보 사설에서 전면적인 프레임으로 드러나는 “미디어(媒體) 전쟁의 서막을 예고”하는 싸인을 주는 것으로 ‘배경화(backgrounding)’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2.3 3월의 국면 전개 양상

중국은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증가가 확연히 줄어들기

-
- 4) 중앙일보(2020.02.24), ‘美 기자 추방 부른 中 “아시아 병자” 트라우마…중국몽근원’: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에 패한 후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급기야 1896년 영국에서 펴낸 잡지에 중국이 ‘Sick man of East Asia’라고 표현되고, 청말 梁啓超에 의해 ‘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로 번역돼 중국에 다시 소개된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

시작한다. 한숨 돌린 환구시보는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발표한 23편의 사설 가운데 10편을 할애하여 미국과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1~2월에 비해 미·중간의 충돌 양상이 첨예하게 대립된 결과임과 동시에 국민의 초점을 코로나 정국에서 미·중 패권다툼으로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4편이 ‘매체’를 직접 언급하며 기자 추방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칼럼에서 촉발된 미·중의 힘겨루기는 3월 3일 「美對中國媒體的這場“戰爭”太荒唐了(미국의 대 중국매체에 대한 이 전쟁은 정말 터무니없다)」에서 ‘매체(미디어) 전쟁’이란 명칭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사용하며 가열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환구시보는 기자 추방 책임 공방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의 프레임을 형성하여 코로나 정국의 정치화 과정에 돌입한다. 새롭게 펼쳐진 미디어 전쟁터에서 3월의 환구시보 사설은 미·중의 힘겨루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디어 전쟁’이 막 시작된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전경화(foregrounding)’ 효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2> 환구시보의 사설의 공통점은 중국의 기자 추방 조치는 정당하며(협박),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기자를 쫓아내는 미디어전쟁을 그만 둘 것(회유)으로 협박과 회유의 이중 전략으로 설득하고 있다.

<표 2> 3월 환구시보 매체(미디어) 전쟁 관련 사설 제목과 주요내용

날짜	사설 제목	주요 내용
3/3	美對中國媒體的這場“戰爭”太荒唐了	미국 매체 전쟁 촉발
3/4	媒體的使命是什麼? 答案在大歷史中	매체의 사명과 역사성
3/18	“媒體戰”若打下去, 美方占不了便宜	매체전 지속 미국 곤란
3/18	美媒不該學政客的腔調衝中國喊	미 매체 중국 훈계 금지

한편 다른 방면의 미·중 충돌이 3월 사설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미국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 공방이다. 문

제의 출발은 2월 27일 중국 공정원 원사 鍾南山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먼저 중국에서 출현했지만, 반드시 중국에서 발원했다고는 할 수 없다(疫情首先出現在中國, 不一定發源在中國)”라는 다소 애매한 주장을 시작한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 매체 역시 鍾南山과 발을 맞춰 코로나의 해외 발원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뒤이어 3월 1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⁵⁾ 이에 미국은 ‘COVID-19’라는 공식명칭을 거부하고 폭스뉴스 앵커, 폼페이오, 공화당 정치인, 트럼프까지 “Chinese(Corona) Virus”, “Wuhan (Corona) Virus”로 명명하기 시작한다. 이것에 대해 환구시보는 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 논리를 동원하여 사설을 발표하고 있다. 그 제목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3월 환구시보 사설 코로나 책임 공방 관련 제목과 주요 내용

날짜	사설 제목	주요 내용
3/5	福克斯新聞台有個流氓主持人	폭스뉴스 앵커 비난
3/8	蓬佩奧們為何如此慌忙向中國甩鍋	폼페이오 중국책임론 비난
3/11	希望美共和黨不朝着極右翼政黨墮落	공화당의 중국책임론 비난
3/12	鍋都砸到華盛頓頭上了, 還想往外甩?	트럼프의 중국책임론 비난

설사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미국에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는 방역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11월 대통령 재선에 큰 위협을 느낀 트럼프는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한 反中으로 태세를 전환하게 된다. (이 문제는 아직 미·중의 코로나 방역 책임 및 배상 문제 관련 공방이 진행 중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정도 간략히 소개함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코로나 정국의 출발부터 60일 간의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5) YTN(2020.03.20.), ‘트럼프, 기자회견문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로 수정’, https://www.ytn.co.kr/_ln/0104_202003201025063921

주요 내용을 토대로 국면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다. 해당 매체는 코로나 정국에 임하여 중국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을 다독이고, 미국과 대립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의 트라우마를 소환하여 인민을 결집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을 통해 모든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

3. 상호텍스트성: “落井下石”과 “亞洲病夫”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 사용되는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사용된 표현은 어떤 類의 사건에서 소환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설의 전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담화 패턴을 만들어 내는 표현은 “落井下石”과 “亞洲病夫”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그 표현을 통해 어떤 담화질서를 구성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3.1 “落井下石”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

환구시보는 2020년 2월 2일 「莫在中國處於臨時困難時落井下石(중국이 임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마치 우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어라)」이란 사설을 발표한다. 본문을 살펴보면, 폼페이오가 1월 30일 “中國共產黨是這個時代最核心的威脅(중국공산당은 이 시대의 최고 핵심 위협이다)”라고 중국을 비난했음을 알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중국위협론’을 설파해왔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온 미국의 對 중국 이데올로기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사설은 이 상황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마치 우물에 빠진 중국에게 돌을 떨어

뜨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落井下石”=“비도덕”이라는 중국인들의 뇌리에 자리 잡혀 있는 공식을 끌어내어 폼페이오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月30日美國商務部長羅斯却公開說，新冠病毒將有助於加速工作機會“回流到北美”。這同樣是不道德的。美國一些人想乘人之危嗎？
(1월 30일 미국상무장관 로스는 공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일할 기회의 “북미지역으로 회귀”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도덕하다. 미국의 일부사람들은 남의 위기를 틈타려는가?)

위 문장에서도 역시 “不道德”이 언급되었고, “乘人之危(남의 위급한 때를 틈타서 침해하다)”란 표현이 보인다. “乘人之危” 역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 것이다. 사실은 “落井下石”의 대표 주인공으로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지목하고, “乘人之危”의 대표 인물로 미국 상무장관 로스를 예로 들었다. 글은 어떤 “社會的道德標準(사회적 도덕 표준)”으로도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타이르듯 말하고 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는 제목에서 이미 들어나 있듯이 자신들의 “困難”은 “臨時”적인 것임으로, 다 지나갈 일인 만큼 “中國人民感情(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코로나로 한참 혼돈의 상태에서 사회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2월 2일에, “中國人民感情”을 제기하며 인민을 대변하듯 해당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 정부에 대한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시선 돌리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인이란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도덕’(“모든 정치는 도덕적이다”, Lakoff, 2015, p14)을 정면에 내세운 후, 인심(人民感情)에 호소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댓글이 8121개가 달리며 많은 중국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낸 점을 고려한다면 나름 성공한 ‘전술’이라 할 것이다.

환구시보는 2월 10일 사설 「這個時候詆毀中國，蓬佩奧刷新下限」(이 시기에 중국을 헐뜯는데, 폼페이오는 새로운 하한을 쇄신(경신)했다) 본문에서 “落井下石”이란 표현을 다시 한 번 사용하고 있다. 일단 본 사설의 제목에서 언급된 “詆毀(저훼)”란 어휘는 ‘諷刺(풍자)’나 ‘동물에 빗댄 직설적인 욕’ 類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남의 명예를 실추시켜 자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된다. 또한 “刷新(쇄신)”은 긍정적 상황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詆毀(저훼)”와 “刷新(쇄신)”은 상대적 대비를 통해 극도의 비난과 비아냥의 효과를 내고 있다. 위의 제목을 쉬운 말로 다시 풀어 쓰면 ‘폼페이오가 갈때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본문 첫 단락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美國國務卿蓬佩奧仍然不忘攻擊抹黑中國。這種行為無疑比落井下石還要惡劣，也反映出蓬佩奧的反華立場是多麼頑固，可以說已經到了歇斯底里的地步。(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여전히 중국을 공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낙정하석”보다 더 나쁜 것이며, 폼페이오의 反中 입장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미 히스테리의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落井下石”에 비해 더 “惡劣(악렬)”, 얼마인지(多麼) 측정도 안 되는 “頑固(완고)”, 그 결과 “歇斯底里(히스테리)”의 경지에 다다랐다면, 폼페이오는 갈 때까지 갔다고 보아야하는 것이다. 우리는 2월 10일의 사설이 앞선 2월 2일의 논조 보다 훨씬 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落井下石”도 비도덕적인데 그 보다 더 나쁘다는 폼페이오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확대해석 가능할 정도로 높이고 있다. 사설은 표면적으로는 폼페이오가 퍼뜨리는 ‘중국위협론’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내용 안에서도 밝혔듯이 폼페이오의 이런 말은 조금도 새롭지 않다고(“蓬佩奧的這些話一点都不新鮮”) 스스로 말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2월 9일 확진자 4만 명 돌파,

2월 10일 사망자 1000명 돌파로 폭증하는 시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산당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이란 외부의 적을 이용해 인민의 시선을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돌리고 있는 것이다.

3.2 “落井下石”과 “亞洲病夫”가 같이 쓰인 경우

중국정부는 2월 19일 외교부 대변인 耿爽이 나서서 「中國是眞正的“亞洲病夫”(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제목의 칼럼이 중국인민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고 이야기한다.⁶⁾ 동시에 세 명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중국 취재증을 취소함을 발표한다. 환구시보 역시 같은 날 저녁 18시 49분에 「打壓中國媒體，美執政精英們在玩政治(중국 매체를 탄압하려는, 미 집권 엘리트들이 정치 놀이를 하고 있다)」란 사설을 발표한다. 정부와 매체가 같은 날, 같은 문제를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논한 것은 환구시보가 정부의 기관지임을 확인하게 해 준다. 원문을 살펴보면, “中國是眞正的‘亞洲病夫’” 논란을 제기하며, “落井下石”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華爾街日報』在中國抗擊新冠肺炎時不僅不表達同情和聲援，反而用發表種族主義文章落井下石。(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코로나에 항거할 때 동정과 성원을 표시하지 못함당정 인종주적인 글을 발표하여 우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떨어뜨렸다.)

위 예문의 “落井下石” 앞에 “種族主義(종족주의)”란 표현이 나온다.

6) 2020年2月19日 外交部發言人耿爽主持網上例行記者會: “2月3日,《華爾街日報》刊發美國巴德學院教授米德(Walter Russell Mead)撰寫的評論文章,該文詆毀中國政府和中國人民抗擊疫情的努力,報社編輯還爲文章加上了《中國是眞正的“亞洲病夫”》這種帶有種族歧視色彩的聳人聽聞標題,引起中國人民的極大憤慨和國際社會廣範譴責。……鑒此,中方決定從即日起,吊銷《華爾街日報》三名駐京記者的記者証。” <https://www.fmprc.gov.cn/web/>

종족주의는 인종주의이며 인종차별의 의미이다. 해당 사설은 “種族主義”란 표현을 전체 세 번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耿爽의 발표문에도 “種族歧視色彩(인종차별색채)”라고 언급하고 있다. 중국정부와 환구시보는 이것을 ‘인종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Racism’란 표현은 금기와도 같은 표현이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 ‘Racism’은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미국인들의 공분을 불러올 수 있는 어휘인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COVID-19”라는 공식명칭을 버리고 “Chinese Virus”로 명명하기 시작한 후에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문화적 배경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亞洲病夫”란 표현에 ‘Racism’이란 꼬리표를 붙여 미국에 던져주는 반격에 나선 것이다. 즉 중국의 트라우마를 미국의 트라우마로 염색시켜 되 돌려줘 사회적 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설은 자신들의 아픔을 역으로 이용하여 여론 결집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 환구시보의 여론 집결 방법 가운데 ‘역사의 소환’ 방식이 있다. 2018년 4월 7일 발표된 환구시보 사설 「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을 보면, “抗美援朝(항미원조: 6.25 전쟁의 중국명칭)”의 의지로 對美 貿易戰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즉 역사 속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상기시켜 인민의 결의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2월 19일자 사설 역시 ‘역사적인 아픔’인 “亞洲病夫”를 “種族主義(종족주의)”란 표현으로 극대화시켜 코로나로 혼돈에 빠진 국내여론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끝으로 가면서 “미국은 조금의 도덕도 없다(美國毫无道德)”라고 하면서, 『論語』 「衛靈公」의 한 구절 “己所不欲勿施於人(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을 인용하여 중국인이라면 설명이 불필요한 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소

7) 최태훈(2018), 「미·중 무역 분쟁 관련 環球時報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 분석-「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對美貿易戰」 중심으로」, 『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52집, p.165-194.

개한 2월 2일자 사설에서도 “社會的道德標準(사회적 도덕 표준)”을 언급한바 있다. 중국은 적어도 누군가 우물에 빠지면 그 위에 돌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닌, 미국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우위를 통해 미국에 비하여 체제와 이념적으로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은 중국의 의도가 “落井下石”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우물에 빠졌다는(“落井”) 전제는 지나친 피해자 코스프레라 판단된다. 코로나가 중국을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중국이 피해자이기 이전에 역병 전파의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전제를 암시하는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출발선상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시작하는 기만전술이라 판단된다.

3.3 “亞洲病夫”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

2월 19일 환구시보 「打壓中國媒體, 美執政精英們在玩政治(중국 매체를 탄압하는데, 미 집권 엘리트들이 정치 놀이를 하고 있다)」 사설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亞洲病夫” 논란은 2월 25일, 3월 3일·18일 등의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2월 25일 사설 「在記者問題上, 奉勸華盛頓別走太遠了(기자문제에 있어, 권고를 받들어 워싱턴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자신들의 2월 19일 기자 추방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목 가운데 “奉勸(봉권: 권고를 받들라)”의 “奉”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드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그 뉘앙스는 ‘좋은 말로 할 때 워싱턴이 중국의 권고를 받들어 일을 더 확대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회유이나, 중국이 윗자리에 앉아 ‘체면’을 살리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설 본문에서는 협박을 하고 있다.

美國的媒體罵中國是 “真正的亞洲病夫”, ……中國就不能做点什么表達我們的態度和脾氣了嗎? ……都可能增加他們駐華記者的相

關風險. (미국 언론은 중국은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라고 비난한다,
……중국은 우리의 입장과 불만을 조금도 표현 못할 것 같은가?
……그들(미국)의 재중 기자들의 관련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환구시보는 3월 3일 사설 「美對中國媒體的這場“戰爭”太荒唐了(미국의 중국매체에 벌이는 이 “전쟁”은 정말 터무니없다.)」는 “매체를 겨냥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워싱턴의 발명품(挑起針對媒體的戰爭, 這是華盛頓的發明)”임으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의 기자증 취소에 대한 미국이 상응조치가 재미 중국 기자 60명 감소로 되돌아오자 대단히 황당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월스트리트저널의 “亞洲病夫” 논평에 대한 중국의 조치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3월 18일 사설에서도 “이 충돌은 의심할 바 없이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임에 틀림없다(這場衝突無疑是美方主動挑起的)”라고 단언하고 있다. 앞선 사설에서 매체전쟁이 미국의 발명품이라 한 것을 상기한다면 논조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 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8년 在美 중국 기자들에게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 등록을 요구하였고, 기자 추방 사건 직전에 외국사절단(“外國使團”)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매체전쟁은 미국에 의해서 2018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추방 조치는 매우 정당하며, 그 후 미국이 저지른 재미 중국기자 60명 추방에 대해 중국이 재보복의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4.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

앞선 2, 3장을 통해 번곡점을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들은 미디어 전쟁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디어 전쟁은 어떤 양상

으로 진행되었는가? 본 장에서는 미디어 전쟁은 왜 시작되었으며,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미국의 미디어 전쟁 촉발 주장과 중국의 자위권 발동 이데올로기의 형성

환구시보 사설은 반복적으로 ‘이 전쟁은 미국이 촉발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누가 미·중 미디어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 중국이 주장하듯이 미국이 미디어 전쟁(매체전쟁)을 일으킨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미·중 미디어 전쟁에 대한 사건 경과를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시간별로 배열해 보도록 하겠다.

〈표 4〉 미디어 전쟁의 사건 경과 일지

미국	중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동아시아 병자’(2/3)	중국 사과 요구(2월3일 이후)
월스트리트저널 사과 안함	
5개 중국매체 미국지부 → ‘외국사절단’ 변경(2/18)	在中 월스트리트저널 3인 기자중 취소(2/19)
在中 미국 기자 추방에 따른 대응책 논의(2/24)	중국 매체 탄압 강화 우려 표명(2/25)
在美 중국 기자 160 → 100명 미만 강등(3/2)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주중 특파원 기자증 만료 시 취재 금지(3/18)

<표 4>의 미디어 전쟁의 사건 경과 일지를 살펴보면, 미·중 미디어 전쟁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일으켰다고 단언하기에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이 전쟁의 시작이 “亞洲病夫” 논란을 일으킨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이라 한다면, 중국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된다. 그러나 칼럼

의 내용은 중국정부의 초기 사태 은폐, 방역 대응 실패, 공산당의 신뢰 하락 등을 밝히고 있다.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칼럼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亞洲病夫”라는 제목을 구실삼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을 추방한 것이다. 결국 보기에 따라서는 기자증을 취소한 중국의 조치가 선제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말싸움이 주먹다짐으로 비화된 형국인 것이다. 그 후 3월 2일 미국은 재미 중국 기자의 신분 변경 및 인원 감소 조치(160명→100명)로 보복을 감행한다. 그 결과 3월3일 중국은 환구시보 사설 「美對中國媒體的這場“戰爭”太荒唐了(미국이 중국 매체에 대한 이 전쟁은 정말 터무니없다)」를 통해 이 분쟁을 명확히 매체 전쟁으로 프레임 함과 동시에 “挑起針對媒體的戰爭，這是華盛頓的發明。(매체를 겨냥한 전쟁을 일으킨 것은 워싱턴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그 다음날인 3월 4일 발 빠르게 미국이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매체 전쟁에 대하여 「媒體的使命是什麼？答案在大歷史中(매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답안은 대 역사에 있다)」라는 거창한 제목의 사설을 내보낸다. 이것은 논증 중심의 전쟁 명분론을 제시하는 미·중 매체 전쟁의 하이라이트 이론편이다. 그 내용에서 “西方一些人如此咄咄逼人，我們也不應再沉默了(서방의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다그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중국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미국이 싸움을 걸어와 대응하는 것으로 자기 방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으니 중국은 대응한다는 논조는 자신들의 재 보복 조치가 있는 후 발표된 18일자 두 편의 사설에서도 여실히 보이고 있다.

8) news1(2020.02.20), ‘문제된 WSJ 사설 “中, 아시아의 진짜 병자” 어떤 내용?’
<https://www.msn.com/ko-kr/news/world/>

這場沖突無疑是美方主動挑起的。(이 충돌은 의심할 바 없이 미국 측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3/18: 「“媒體戰” 若打下去, 美方占不了便宜」)

這次中方採取行動有被迫自衛的性質。(이번 중국 측의 행동은 부득이한 자위적 성격이 있다.) (3/18: 「“媒體戰” 若打下去, 美方占不了便宜」)

它是美方挑起的。(그것은 미국 측이 일으킨 것) (3/18: 「美媒不該學政客的腔調沖中國喊」)

如果美方不……造成大量中國記者事實上的被驅逐, 北京會對幾家駐華美國媒體的記者採取行動嗎? (미국이……대량의 중국 기자들을 사실상 추방하지 않는다면, 베이징은 몇몇 중국 주재 미국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행동에 나섰겠는가?) (3/18: 「美媒不該學政客的腔調沖中國喊」)

위 예문과 같이 사실은 미디어 전쟁에서 자신들은 전쟁을 걸어온 미국 측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하여 대응 조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불거진 인민의 불만, 불안을 미국과의 싸움판으로 돌려 여론을 결집하고자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디어 전쟁’이란 이름을 사실을 통해 처음으로 명명한 사실, 현재의 사태를 ‘전쟁’상황으로 몰고 있는 방법 등은 전형적인 환구시보의 여론몰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반복된 미국의 ‘先攻論’이다. 사실상 주먹다짐을 먼저 시작한 중국의 입장에서 그 죄를 미국으로 돌리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즉 “亞洲病夫”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역시 싸움의 시작이 미국임을 알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환구시보의 논조는 초지일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은 것이며, 먼저 싸움이나 거는 미국과 같은 깡패 나라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4.2 협박과 회유의 이중 언어 전략: 재프레임화 전략

‘미디어 전쟁’을 일으킨 중국의 속내는 사실상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이란 큰 자장 안에서 하나의 지나가는 ‘전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미·중 무역전쟁과 같이 돈이 결부된 ‘현재’의 문제도 아니며,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같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미래’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亞洲病夫”는 ‘과거사’를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국의 ‘面子(체면)’가 결부된 문제인 것이다. 미디어 전쟁은 “亞洲病夫”에 반응하는 중국인들의 분노와 그런 분노에 기대어 여론을 결집하려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만 반드시 일으켜야 할 전쟁인 동시에, 오래 끌고 싶지 않은 전쟁인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언론제재를 빌미로 더 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코로나로 후퇴한 중국 경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명약관화해진다.

따라서 중국은 비난조의 협박과 화해조의 회유 전략을 적절히 교차 사용하고 있다(최태훈, 2019). 3월 3일 사설 「美對中國媒體的這場“戰爭”太荒唐了」는 “討伐(토벌)”, “妖魔化(요마화=요괴화)”, “走火入魔(주화입마: 무공을 연마하다 정신이 나가는 것)” 등의 표현을 써서 미국을 비난하다가 “兩國關係的大格局並沒有亂成那樣(양국 관계의 큰 구도는 결코 그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다)”라고 은근히 회유를 하고 있다. 3월 4일 「媒體的使命是什麼? 答案在大歷史中(매체의 사명은 무엇인가? 답안은 대 역사에 있다.)」는 그 사설의 내용 자체가 회유책에 해당된다. 중국 매체는 집권세력이 주도하고, 서방의 미디어는 자본가에 종속되어 있으니, 결국은 미·중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업계 사람이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畢竟大家是同行, 相互尊重就好”). 그러나 우리도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동시에 보내고 있다(我們也不應再沉默了).

3월 18일 「“媒體戰”若打下去, 美方占不了便宜」 사설에서도 “我們希望中美的衝突不要向媒體交流的領域進一步擴展(우리는 미·중의 충

들이 언론 교류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확실한 회유를 하고 있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협박과 회유가 한 문단 안에서 교차하는 이중적 언어전략을 구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中方不會繼續忍气吞聲.(협박: 중국은 계속 참을 수 없다.) 希望美方不要采取進一步行動了, 至少讓兩國的“媒體戰”先逐漸緩和下來(회유: 미국이 더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최소한 양국의 ‘매체전’이 먼저 점차 완화되길 희망한다.)

끝으로 3월 18일「美媒不該學政客的腔調冲中國喊」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협박+회유+협박이 교차하며 끝을 맺고 있다.

最后的結果必然是用行動來對話(최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행동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否則的話所有那些麻煩都會出現在美國駐華記者的身上(그렇지 않다면 모든 번거로운 일들이 주중 미국 특파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我們很不希望中美冲突那樣發展(우리는 미·중의 충돌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但我們猜, 事情就將這麼簡單(우리가 추측건대, 일이 이렇게 간단할 것이다).

끝 문장에서 보이는 “事情”은 주중 미국 특파원들에게 일어날 번거로운 일이라고 이해가 된다. 여운이 남는 말이며, 동시에 협박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5. 결론

코로나19 국면의 환구시보 사설 비교 분석 결과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은 미·중 미디어 전쟁의 촉발과 전개 발전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미

· 중의 패권 갈등의 격화를 야기하며, 세계적 유행 감염병이 두 국가의 힘겨루기 패권으로 점철된 정치화 과정으로 재편·비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환구시보 사설은 코로나19 전쟁의 현재성에서 뒤로 물러나(배경화 효과, backgrounding), 그 자리를 미디어전쟁으로 대치, 전도시키는(전경화 효과, foregrounding) 허구적이고 인공적인 프레임 전쟁을 시작한다. 즉 현재를 반영하는 전쟁은 바이러스 감염병 퇴치 전쟁이 아니라 미·중의 미디어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된다. 실재 전쟁을 가상의 전쟁으로 둔갑시키는 왜곡(distortion)과 변형(misinterpretation)으로 담화질서가 재편된 것이다.

미·중 미디어 전쟁은 그 출발선이 미·중 패권 전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60일 간의 환구시보 사설 역시 미·중 패권 전쟁의 자장 안에서 상호교차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포괄적 국면을 이해할 때 사설의 의사소통 사례(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건 국면의 환구시보 사설)가 창조해내는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과 그 질서의 재편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2장에서 60일간의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의 전개 양상을 1, 2, 3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1월 달은 역병에 맞선 국가적 대응 방안과 세계가 중국을 경시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결속을 강조한다. 1월 31일 사설은 2월 환구시보 사설의 방향을 보여주는 ‘배경화’ 효과가 있다. 둘째, 2월 달은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응하는 사설의 발표가 늘기 시작한다. 「莫在中國處於臨時困難時落井下石」(2/2)을 필두로 전체 32편 가운데 6편으로 정리된다. 폼페이오를 비난하고, 미국의 정치인을 비난하며, 2월 19일, 25일 사설을 통해 미디어 전쟁을 촉발시킬 준비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사설 역시 3월 달 환구시보 사설의 방향을 지시하는 배경화 효과가 있는 글이다. 셋째, 3월 달은 18일까지 발표된 23편의 사설 가운데 10편을 미국과의 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큰 흐름으로 4편은 미디어 전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나머지 4편은 코로나 바이러

스의 책임 공방문제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전쟁에 집중하였다. 60일 간의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을 통한 양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을 잠재운다. 둘째,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애국심을 고취한다. 셋째, 인민을 결집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을 통해 모든 사안을 정치화한다.

3장에서는 반복 사용되는 표현을 통해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해 보았다. 필자가 언급한 두 가지 표현은 “落井下石”과 “亞洲病夫”이다.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사용된 표현이 어떤 類의 사건에서 소환되는지를 사설의 예를 들어 고찰하였다.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어떤 담화질서를 구성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혔다.

“落井下石”은 ‘우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로 “落井下石”=‘비도덕’이라는 등식이 중국인들의 뇌리에 있다. 어떤 이가 “落井下石”을 하면, 그는 인간도 아닌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곤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위협론’을 퍼뜨리고 다니는 폼페이오를 마치 우물에 빠진 자에게 돌을 떨어뜨리는 비도덕적이며, 인간도 아닌 대상으로 몰고 있다. “落井下石”의 사용을 통하여 환구시보는 중국이 도덕적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정국에 미국이란 외부의 적을 이용해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물에 빠졌다 는(“落井”) 전제는 피해자 코스프레이며, 중국이 코로자 전파자로서의 가해자임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만전술이라 파악된다.

“亞洲病夫” 논란은 2월 19일을 시작으로 25일, 3월 3일·18일 등의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중국은 진정한 아시아의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칼럼에서 촉발된 이 표현은 과거 “東亞病夫”라는 오명과 오버랩되어 중국인들에게 아픈 역사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 어휘의 반복적인 사용은 당연히 중국인들의 분노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고, 환구시보는 그 분노를 통한 인민의 결속을 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미디어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아픔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우선

시 된다. 즉 미디어 전쟁과 관련된 사설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이 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는 논리를 “亞洲病夫”란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펴고 있는 것이다.

4장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에서는 첫째, 미국의 미디어 전쟁 촉발 주장과 중국의 자위권 발동 이데올로기의 형성(전경화 효과와 프레임 선정). 둘째, 협박과 회유의 이중 언어 전략을 언급하였다. 이 전쟁의 시작이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이라 한다면 중국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3명을 추방한 ‘행동’을 먼저 취한 것은 중국이다. 즉 ‘말’로 시작된 싸움이 ‘주먹다짐’으로 번진 경우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이 아닌 미국이 선제공격하였음을 미디어 전쟁 관련 6편의 사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불거진 인민의 불안, 불안을 미국과의 싸움판으로 돌려 여론을 결집하고, ‘미디어 전쟁’이란 이름으로 현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몰고 있으며, 선제공격론의 죄를 미국으로 돌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미디어 전쟁’은 “亞洲病夫”라는 ‘과거사’ 언급을 통해 손상된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해야하는 중국의 ‘체면(面子)’과 관련된 문제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실리를 위한 전쟁은 아니다. 따라서 체면을 살리되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그 결과 사설은 내용 가운데 협박과 회유가 교차해서 등장한다. 협박+회유, 협박+회유+협박의 패턴을 보여주는 사설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병자’는 미국이 그동안 미·중무역전쟁을 기점으로한 국제 패권질서 재편 국면에서의 ‘중국 위협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염병을 확산시킨 원초적인 죄를 진 나라로써 전 세계의 위협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동아시아 병자’라는 명명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상대방을 프레임한 ‘중국 위협론’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 다만 위협의 양상이 가상의 ‘중국위협론’에서, 현실로 들어난 역병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그대로 드러내

는 눈에 보이는 ‘중국위협론’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미·중간의 코로나 책임공방을 견인하는 변곡점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정국에서 펼쳐지는 미·중의 대결은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미·중 사이에 펼쳐지는 코로나 책임론은 이미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지속하도록 하겠다. 매 사안마다 정치화되어 대립하는 양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필자의 연구가 선후배 학자들에게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미력하나마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해 본다.

■ 참고문헌

- 김해연, 「비판적 담화분석」, 김해연, 김규현, 김용진, 박용예 외 4인 저, 『담화분석』, p. 311~333, 서울: 종합출판 EnG, 2016.
- 이원표,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최윤선, 『비판적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14.
- 최태훈, 「미·중 무역 분쟁 관련 環球時報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用打抗美援朝的意志打对美贸易战」중심으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52, 2018.
- 최태훈, 「협박과 회유의 이중 담화전략 — 환구시보(環球時報) ‘화위(華爲)’, ‘맹만주(孟晚舟)’, ‘캐나다(加拿大)’ 관련 사설 비판적 담화 분석」, 『중국언어연구』, 81, 2019.
- Fairclough, Norman, 『대중매체 담화분석』, 이원표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Fairclough, Norman, 『언어와 권력』, 김지홍 역, 광명: 경진, 2011.
- Fairclough, Norman, 『담화분석방법: 사회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김지홍 역, 광명: 경진, 2012.
- Fairclough, Isabela & Fairclough, Norman, 『정치담화분석』, 김현강·신유리 역, 서울: 박이정, 2015.
- Lakoff, George,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나익주 감수·유나영 역, 서울: 와이즈베리, 2015.
- 중앙일보, ‘美 기자 추방 부른 中 ‘아시아 병자’ 트라우마…중국몽 근원’ 2020.02.24.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news1>, ‘문제된 WSJ 사설 “中, 아시아의 진짜 병자” 어떤 내용?’ 2020.02.20. <https://www.msn.com/ko-kr/news/world/>
- WSJ, ‘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 2020.02.03. <https://www.wsj.com/articles>

- YTN, ‘트럼프, 기자회견문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로 수정’,
2020.03.20. https://www.ytn.co.kr/_ln/0104_202003201025063921
- 2020年2月19 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網上例行记者会.
<https://www.fmprc.gov.cn/web/>
- 環球時報, ‘美国打压华为遭遇重挫, 该反思了’ 2020.01.29.
- 環球時報, ‘莫在中国处於临时困难时落井下石’ 2020.02.02.
- 環球時報, ‘这个时候诋毁中国, 蓬佩奥刷新下限’ 2020.02.10.
- 環球時報, ‘美国再次起诉华为, 是黔驴技穷’ 2020.02.15.
- 環球時報, ‘美政客慕尼黑“放毒” 污染国际关系’ 2020.02.16.
- 環球時報, ‘打压中国媒體, 美执政精英们在玩政治’ 2020.02.19.
- 環球時報, ‘在记者问题上, 奉劝华盛顿别走太远了’ 2020.02.25.
- 環球時報, ‘美对中国媒體的这场“战争” 太荒唐了’ 2020.03.03.
- 環球時報, ‘媒體的使命是什么? 答案在大历史中’ 2020.03.04.
- 環球時報, ‘福克斯新闻台有个流氓主持人’ 2020.03.05.
- 環球時報, ‘华盛顿又抛出干涉我内政的恶法’ 2020.03.06.
- 環球時報, ‘蓬佩奥们为何如此慌忙向中国甩锅’ 2020.03.08.
- 環球時報, ‘希望美共和党不朝着极右翼政党堕落’ 2020.03.11.
- 環球時報, ‘锅都砸到华盛顿头上了, 还想往外甩?’ 2020.03.12.
- 環球時報, ‘美人权报告, 一盆泼向中国的污水’ 2020.03.13.
- 環球時報, ‘“媒體战” 若打下去, 美方占不了便宜’ 2020.03.18.
- 環球時報, ‘美媒不该学政客的腔调冲中国喊’ 2020.03.18.
<https://opinion.huanqiu.com/editorial>

❖ ABSTRACT

A Critical Comparative Discourse Analysis of th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with a Focus on the US–China Media War Featured by COVID–19

Choi, Tae–Hoon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based on the method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mined the aspects of re/constructing the orders of discourse in the context of COVID-19 through the *Global Times* editorials.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d: First, how have the headlines of the *Global Times* developed the construction of discursive patterns in the coronavirus phases for 60 days from January 19 to March 18, 2020? Second, what are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repetitive patterns of expression revealing the intertextuality of th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and what events triggered those recursive patterns? Third, what are the strategies of politicization through the media war? The data included th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during that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revealed discourse orders were intended to: 1) decrease the people’s criticism of the Chinese government, 2) intentionally establish a confrontation with the US to promote patriotism, and 3) politicize all matters through a fierce media war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ransfers their own responsibilities to the US.

Second, the essential expressions showing the intertextuality through the editorials pertained to “Nakjeong-Haseok,” meaning throwing a

stone to a person fallen in a well, and “Donga-Byeongbu,” meaning the sick man of Asia. These two expressions are used repeatedly to form a patterned discourse practice and play a key role in China's effort to build a political image of moral superiority and justice. In other words, these two patterns of expression enable the Chinese public to unconsciously evoke immorality and unpleasantness about “Nakjeong-Haseok” and “Donga-Byeongbu.” Furthermore, these core expressions are recursively recalled in any relevant events for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us, are entrenched in the Chinese minds, manipulating them so that they may believe in the legitimacy created by the discourse practice. Therefore, the constructed frame of discourse producing ideological distortion helps people pretend that everything that China does to the US is moral and just while whatever the US does to China looks immoral and unjust.

Third, the core politicization strategies through the media war lie in 1) the allegation of triggering a media war by the US and the formation of China's self-defense ideology and 2) threatening and conciliating as double-layered linguistic strategies. China continues constructing ideology in the six ‘media war’-related editorials that the US had been preemptively attacked. As they make excuses to blame the US for the sin of preemptive strikes, they intend to let the public know that they are morally superior. The media war is a problem related to the “face” of China. It is a war that saves their face but does not need to be pursued for a long time. As a result, the editorials reveal the intersection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threat and conciliation. In conclusion, the “Sick Man of Asia” can be seen as a new version of the “Chinese Threat Ideology.” However, the hypothetical “Chinese Threat Ideology” has been transforming into “visible devastating Chinese threats” as the pandemic has spread worldwide.

Key Words : COVID-19, US-China ‘Media War,’ Throwing a Stone to a Person Fallen in a Well, Sick Man of Asi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논문접수일 : 2020. 05. 20

■ 심사완료일 : 2020. 06. 09

■ 게재확정일 : 2020. 06. 10

